

2022

배움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김규한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 잠언 4장 27절 -

하나님께 빛을 받은 이야기

빛음을 마치며

4기생으로 들어와서 1차 빛음을 하면서 저의 많은 부분들이 빚어지고 드디어 제가 그릇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빛음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교양도 부족했던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으로 저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음예배를 통해서 가치 기초소양을 통해서 빛음 수업과 신앙수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일 예배를 묵상하며 나의 삶에 대입해보며 생활이 늘기도 하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더 빚어지고 보듬어 짐을 느꼈습니다.

목차

- 사명선언문 (Mission Proclamation)
- 신앙 에세이 (Faith Essay)
- 정의 에세이 (Justice Essay)
-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Principles of a modest life)
- 공동 성결 서약문 (Common sanctification pledge)

ABOUT ME

김규한

2006.04.05

다른 기독교 대안 학교를 다니다가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그만두게 되고 드림이 4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중-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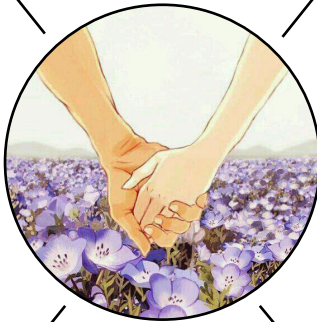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인
정보보호전문가**
사진을 도촬 또는 가지고 있던
사진을 도용, 유출 당하는
일을 막고 해결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요리사**

남들이 배부르고 맛있게 신선하
고 질 좋은 음식을 즐기며 사랑을
나누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는 환경지킴이**
환경을 생각하며 자원을 절약하
고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천국동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
람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을 생각하면서 도움
을 주는 삶을 살도록하겠
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가
정을 이루는 아버지**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
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의 아버지로
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
육하겠습니다.

Action Plan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인
정보보호전문가

1. 넷망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만들 수 있
는지에 대해 공부하기

2. IT종합과정에 있는
과정들을 학습하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는 지킴이

1. 무단투기 하지 않기
2.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3. 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기
4.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의 포스터나 글 또는
시를 써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요리사

1. 요리를 많이 경험하여
실력과 노하우 쌓기

2. 잘하는 음식 찾기

3. 음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공부하기

천국동역자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

1. 격려, 칭찬, 힘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기
2. 누가 도움을 청하였을
때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
3. 눈에 보이는 힘들편만
아니라 어디선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기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가정을 만드는 아버지

1.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
기 위하여 언어, 태도, 생
활을 바르게 바꾼다.
2. 내가 학생 때, 힘들 때,
기쁠 때, 잘한 일이 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듣고
싶었던 말들을 기록한다.
3.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말에 대해 공부하기

김규한

신앙
에세이

넘치는 사랑을 나눠줄 세상을 만들자

나는 내가 사랑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작게나마 느낀다. 모태신앙이라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아주 많다. 삶 속에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왜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있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내신 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대체 뭘길래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걸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은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동행하여 주는 이가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 분이 하나님이고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크나큰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사람이 벌레를 살리려고 벌레가 되어서 죽은 것이다. 신의 권세와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먼저 나아오셔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쉴 그늘을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든지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나의 모습이 악마 같았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느끼는 때는 고난주간이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사람들은 로마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환호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십자가형에 찬성하며 예수님을 증오하였다. 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라고 느꼈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알지 못하는 모

숨이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구나를 느끼게 해준다.

SDC라는 기독교 대안 학교를 다니면서 짧게나마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신앙적이었던 때를 경험하였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다가왔고 그대로 무너져 세상으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자신이 도무지 나지 않아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고 결국엔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었는데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담기 힘들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고 드림이를 알게 되어 오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학교에 왔다. 학생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말이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드림이는 보다 성숙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노력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잡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차차 알게되어가고 있어서 좋았다.

이젠 나의 집에 놀러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겠다.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예쁘게 꾸며야겠다. 나의 옆 집도 앞 집, 뒷 집, 주변 집도 모두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

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릴 위해, 사랑의 확증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증언을 하는 삶을 살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eyday?

김규한

정의 에세이

정의를 보는 시선 끝에 목적이 있길 바라며

종종 사람들은 남들과 차이를 느낄 때 ‘세상은 불공평해!’ 라곤 한다. 과연 세상은 불공평할까? 정부와 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마련하려고 도움을 주는 이 사회를 과연 불공평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당신이 기관사라고 생각해보자.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기차가 설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이 사실을 모른채 일을 하고 있다. 마침 옆으로 난 길이 있어서 틀

려고 봤더니 한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인부로 방향을 틀어 5명을 살린다고 말할 것이다. 1명의 생명보다 5명의 생명이 더 값지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기차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이다. 상황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만약 몸을 던져서 기차 밑에 깔린다면 기차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난 체구가 작아서 안될 것 같아.’ 옆을 보니 키와 덩치가 큰 한 사람이 서있다. 그러면 그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당신은 그 사람을 기차길로 밀 것인가. 이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것이 딜레마다. 눈치만 보면 아까는 5명의 목숨이 1명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판단해서 틀었다. 그러면 덩치 큰 사람을 밀어서 다섯 명을 살릴 수 있으니 같은 논제라면 밀어야 하는데 이걸 왜 안 미안 말이다. ‘대체 정의로운 것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에 대해 접근해볼 수 있다.

제레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인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 애들이나 하는 헛소리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한 상태는 쾌락이 높아지고 고통이 최대한으로 낮아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 이 행복을 많은 사회가 누릴 때 정의로운 사회다.” 라고 벤담은 말했다.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잔인한 장면을 보며 쾌락을 얻는다면 공리주의자는 무슨 근거로 이를 비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유 지상주의를 가진 사람들

이 말했다. “사람은 하늘이 내린 존엄함,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권리를 왜 국가가 나서서 제한 하나요?” 이게 자유 지상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탈 때 왜 헬멧을 써야하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에 왜 벌금을 무는 것이며 장기거래, 안락사 등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편하게 죽고 싶다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냐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자유 지상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 불임 부부가 고심 끝에 대리모를 고용했는데 대리모가 아이를 품으면서 마음이 바꼈다. 대리모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결국 잡혀서 법정에 섰는데, 1심 판결에서는 계약서가 있으니 불임 부부의 아이로 판결이 났다. 대리모가 항소를 하고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 양육권은 생활형편이 좋은 불임 부부에게 준다. 대리모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로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문권을 줬다. 자유 지상주의에 따르면 자율에 맡겨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합법이다. 그러면 아무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럼 이 여성의 인권은 무엇이고, 산모의 가치는 무엇일까. 과연 이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자유지상주의자인 칸트가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 칸트는 장기거래엔 무조건 반대였다. 칸트가 살던 18세기에는 장기거래가 아닌 치아 거래가 있었다. 이 치아 거래에 몸서리 치면서 칸트가 말했다. “내 치아, 팔다리 다 하늘이 주신 인권, 존엄의 일부인데 내 맘대로 훼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칸트가 말한 정의는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이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 이런 말은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팔조법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두 규율은 시대와

지역이 달랐지만 시대, 장소, 문화를 초월한 공통의 정의이다. 이것이 정언 명령이다. 이런 내용을 전반으로 존 롤스는 이렇게 말한다. “천부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정의로운 사회다.” 라는 실질적 평등을 얘기했다. 실질적 평등이란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뿐이다. 그 ‘차별’이 바로 복지이자 실질적 평등이다.” 라고 존 롤스는 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로 중심으로 얻은 것들을 남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이를 떼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이 복지를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남에게 돈이나 다른 것들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다. 모든 것은 창조된 목적이 있다. 물건조차 다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우개는 흑연을 지우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휴지는 닦으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같이 사용하라고 만든 화장실에서 비치된

휴지나 공용 물품들을 들고 가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올바른 일인가? 그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쓰임 받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목적에 따른 삶이 정의다.” 쉬운 예가 하나 있다. 플룻 장인이 만든 플루트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 플루트를 경매에 올려 부자에게 10억에 팔 수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대부분 판다는 의견을 가질 것이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만 생각한다. “플루트의 목적이 뭐냐?”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근데 좋은 소리를 내라고 장인이 만든 플루트를 부자에게 판다면 장식품이 될 것이지만 연주자에게 선물한다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하면 플룻 장인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플룻 장인은 왜 존재하는가? 좋은 소리를 내는 플루트를 만들려고 존재한다. 그럼 장인이 만든 플루트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자에게 선물되어야 한다. 이는 장인의 존재 이유와 플루트의 목적을 동시에 말해준다.

곰돌이 푸는 나무 발치에 앉아 발바닥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기 꿀벌이 있는 이유는 꿀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리고 꿀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더니 푸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꿀벌에 대한 푸의 생각은 목적론적 추론의 좋은 예다. 이처럼 푸는 꿀벌의 존재 이유를 알고 꿀을 만드는 이유에 맞게 행동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한다.

그럼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
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우
릴 향한 사랑을 알리며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이다.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며 나의 사명인 하나님
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진
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남들을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당신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

당신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for you?

김규한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너가 절제할 때 누군가는 웃는다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것
-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 과소비를 하는 것
- 잡담을 참지 못 하는 것
- 끊임없이 놀고 싶어 하는 것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 1 - 가진 것에서 적당히 선택하고 만족하기
- 2 - 정말 원하는 한 가지만 바라보기
- 3 - 삶에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기
- 4 - 꼭 필요한 것들로 단순하게 살기
- 5 - 희로애락을 품고 뒤흔치기

빛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가치기초소양’ 절제

2022 드리미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
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
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
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
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광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
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김규한

김규한

성결
에세이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신은 “한국입니다, 중국인입니다, 캐나다 사람입니다.” 등으로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어느나라 사람 곧, 국적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혜택을 받으며 그 나라에서 살겠더라는 것이다. 자신의 국적을 알고, 어느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나의 국적과 당신의 국적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나라의 국적을 소개하려고 한다.

영원히 살 나라와 영원히 살 수 없는 나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삶을 준비한다면 영원히 살 나라를 준비할 것이다. 당신의 삶은 짧고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없어 상상하기조차 힘든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살아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국적을 얻기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여정을 떠나면 당신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여정을 함께 떠나 영원히 건재할 나라의 국적을 같이 얻어보자.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거나 한참 후에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자신의 노년의 삶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간다. 노년을 즐기거나 편안한 여생을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써 외면하고 있던 사실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서 세상에서의 삶 후에 지옥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후보다 사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미래에 다가올 삶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여야 할까. 바로 지금부터다. 죽어야 영원한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한 나라에 든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결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영원한 나라의 국적은 죽음 이후에는 얻을 기회가 없다. 그리고 얻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 한순간이 찾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적을 얻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남들의 시선이였다.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행동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의 뜻보다 우선시 여기며 삶의 주인으로 붙잡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남들에 의해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허상의 인물일뿐 멀어만 보이는 감사의 대상이였다. 모든 것은 선과 악으로 나뉜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선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아닌 선을 행하고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추악한 죄인이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한다. 순전히 의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려 나의 삶의 조종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휴식, 남을 위한 배려, 남을 향한 사랑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늘나라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 삶의 기준은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볼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굳건한 기준을 잡고 확고히 그 기준에 삶을 맞추길 소망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고, 내 몸 앞에서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 될 것이고, 생각과 행동 앞에서는 가히 고개조차 들지 못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성결한, 구분된 삶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와 교제와 지원 즉, 사랑의 이동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국적 취득의 마지막 심사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된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언젠간 없어질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면 안된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해야한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란다. 나는 지금껏 성결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다. 짧지만 빛났던 과거 짧은 기간만큼은 성결했다고 조금은 자부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너무나도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든, 나의 생각과 행동들에서도 성결이라는 단어는 꺼낼 수 없었다. 눈 앞에 있다고 세상이 크게 보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컸었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도 세상 속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나의 삶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한다는 것에 큰 충격에 빠졌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변명과 후회로 가득찬 인생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이 되고 싶다. 모두 힘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길 바란다.

김규한

정직
에세이

정직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직이라는 단어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눈치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여 세상 눈치를 볼 땐 바른 사람처럼 살려고 발악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론 남들 앞에서조차 틀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바라보시며 천국의 길로 좁은 문으로 오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주님을 조롱이라도 하듯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

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크나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법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나를 지켜봐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님, 이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항상 남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인척 하려고 했고 제가 높아지길 바라고 제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저의 삶을 계획하여주셨는데 저는 이 사랑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는 법만 알뿐 나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중요하고 지키며 나가야 할 것임을 알려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짓됨의 결과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익숙함과 귀찮음과 새로움에 속아 다시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그 주님의 손을 놓치 않게 하여 주세요. 저게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정직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지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현실조차 그를 차갑게 내다버립니다. 현실이 돌아선 삶은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고 계신다고 할들 하나님을 볼 여력은 절대 생기지 않을 뿐더러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길다면 길도록 무너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기 보다는 삶이 여이 되고 불만이 됩니다. 주님 정말 이런 삶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일시적인 편함을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미천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은혜도 모르는 비열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욕보이며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수정하기는 커녕 반성도 할까말까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제게 뻗으신 손을 제가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알게 하여 주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할까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주님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 있고 베어버리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는게 좋을거라니까 라는 생각들로 주님을 간구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골리앗의 망언에 화가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분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외칠 수 있는 그 떳떳함을 얻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The front of ‘Coram Deo’

김규한

평화
에세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평화란 무엇인가. 비둘기와 무지개의 상징?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것은, 평화롭다는 것은 단지 큰일 없이 평탄하고 폭력 없이 안전한 사회를 일컫는 말일 뿐인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사회를 만들 때 평화가 찾아올까? 문화적, 구조적 차별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와 누군가는 항상 잃어가고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가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들을 얻고 충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아서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바로 정의와 평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 이룰 인간안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한 것으로, 무력 등에 의한 위협뿐만 아니라 에너지, 식량, 환경 등에 관련된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 간의 편안함을 지켜 유지하는 것이라 부른다.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한다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운동가는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엉망인 부분이 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가지는 곳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환경을 촉진시키면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평화의 영감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 지속가능한 평화의 답은 어쩌면 이런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 바로 나, 스스로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에게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모든 것을 협력과 관심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다. 언제든 딴 곳을 보고 착각과 혼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일상이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에 혼자 걸어가는 길에서는 누구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엔 서로가 있고 서로에게엔 너가 있고 너에게엔 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부축하여 주며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는 고개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고개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길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개개인이 모인 하나의 군중은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기적을 탄생시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견된다. 어떤 군중은 약탈과 살인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르게 해보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신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정신으로서 가치를 획득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한 면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어선 안 된다. 먼저 선뜻 손을 뻗을 수 있는 내 안의 믿음을 말이다.

김규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 계획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_물품보관함

1. 주제

물품 보관함 설치(삶의 질 개선)

2. 문제 개요

근래 맥북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항상 맥북을 지니고 다닌다. 하지만 식사나 운동 시에 이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학생들은 고가의 맥북을 주변 책상이나 선반, 맨바닥에 까지 놓아두게 된다. 이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며 파손 될 위험을 초래한다. 이외에도 책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이 곳곳에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어, 미관에 좋지 않고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많은 곳에서, 관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 의미 있는 청중

소지품을 지니고 다니는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외부 손님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

사람들은 물품 보관함을 원하는가?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가?
물품보관함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평소에 사람들이 어떤 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는가?
이용자들의 어떠한 보관함을 원하는가?
어떤 장소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물건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방안에 따른 필요 지식과 정보]

보관함을 설치하려면 어떤 과정과 조건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을까?
보관함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중 보관함 종류 알기(용도에 따른 종류)

5.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설문 조사]

보관함 종류
문 없는, 문 있는, 노트북 전용, 이데알레 얼음 문짝,

[위치 선정]

체육관, 급식실, 급식실 옆 1층 창고(내부나 앞), 추천도서 책장, 플레이스퀘어, 본관 라운지

[제공처]

핸드메이드 by 홀리워크 or 목공
학교의 지원으로 보관함사에서 구입

6. 문제 해결 방법 정리

식당, 체육관, 플레이 스퀘어 등 여러 곳에 도어형 물품 보관함을 만든다.

- a. 설문조사
- b. 보관함 선정
- c. 규칙 제정, 관리 계획
- d. 기획안 작성, 제출(발표)
- e. 피드백 보완
- f. 결재 후 구입
- g. 설치
- h. 홍보 및 안내
- i. 추후 관리

7. 액션 플랜

A. 설문조사

- a. 구글 '설문지' 활용
- b. 선호도 조사

B. 보관함 선정(자료 조사)

- a. 종류
- b. 디자인
- c. 위치

C. 규칙 제정, 관리 계획

- a. 책임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칙 제정(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용하도록 돕는 규칙 제정)
- b. 각 시설 보관함 관리자 선출

D. 기획안 작성, 제출(발표)

E. 피드백 보완

F. 결재 후 구입

- a. 학교 예산

G. 설치

H. 홍보 및 안내

- a. 프로젝트 소개
- b. 물품 보관함 사용 방법과 위치 안내
- c. 사용 규칙 안내

I. 추후 관리

- a. 회수 여부, 분실물 관리, 청소 등
- b. 교대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관리
- c. 관리, 건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
- d. 사용에 차질이 생길 시, 협의 후 별도 공지

8. 역할 분담

설문 조사, 홍보 (1명)

: 설문지를 통해 주로 가지고 다니는 짐의 종류와 원하는 물품 보관함 종류를 조사한다.

모두가 물품 보관함의 존재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물품 보관함 사용법과 위치를 알린다.

물품 보관함 선정 (2명)

: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물품 보관함을 선정하고 구매한다.

규칙 제정, 추후 관리 (다함께)

: 물품 보관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망가뜨리지 않고 청결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 유지가 되도록 하루에 한 번씩 관리하다 점진적으로 횟수를 줄여나간다.

(예: 매일 -> 주 3회)

김규한

3P

창의활동 계획서

입 닫아 말포임!

시와 글귀 또는 표어를 작성하여 환경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표현함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아가는 활동이다.

먼저, 시에 대해 배우며 기본 지식을 쌓고, 다음으로 환경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와 글귀 또는 표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성과 표현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글들을 쓰고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고 부가적으로 자신의 감성을 담은 시와 글이나 공익광고 표어 또는 디카시 등을 작성 하는 활동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전집을 만들어 전시를 통해 발표를 할 것이다.

시의 구성요소를 배운다. 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있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형식에 맞추어진 시들을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본다.

디카시에 대해 알아보고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익광고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제작되는지를 알아보고 작성하여 본다.

환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시와 글귀 또는 표어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글의 아웃라인을 잡고 작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글을 다시 보며 수정을 하고 서로의 글을 나누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수정 후 최종 발표를 하고 저장한다.이 과정을 여러번 해보며 다양한 글을 써본다.

디카시를 작성하기 답을 스토리를 구상하여 사진을 찍는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와 글귀를 작성하고 검토한 후 서로 나누고 피드백 후 재수정의 시간을 갖는다. 최종본을 사진과 글이 잘 담기게 꾸민다.

디카시는 개인 작품 하나 작성 후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받아 시나 글귀를 작성해주는 활동으로 바꿀 것이다.

공익광고 표어, 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개선할지 정하고 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 어떻게 작성할지 구상한 후 다시 아이디어를 나누고 글을 작성한다. 검토 후 서로의 글을 나누며 피드백 후 수정을 통해 최종 글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쓴 시와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집으로 만들어 인쇄를 통해 전시하여 발표할 것이다.

이상 ‘입 닫아 말poem!’의 수업 소개였습니다.

김규한

학기를 돌아보며

빛음 2단계를 밟고 올라서다

빛음 2단계를 돌아보며, 이번 학기를 돌아보며 저를 보면 저는 참으로도 어린아이라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빛음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어린 아이처럼 놀고 싶고 잘하고 싶고 까불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사뭇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기도 하였지만 저의 모습들은 철부지 같았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저의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여러 많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아이에서는 조금 벗어나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줄 드리미가 있다는 것 나를 밀어줄 드리미
가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로 인한 것은 없
다는 것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 나도 소중한 사람이
라는 것 나일 수록 더 모른다는 것 나에겐 모든 것이 소중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뜻, 나의 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온전히 나의 모든 것
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감사
하는 삶을 살아야한다. 주님께 의탁드린다 함은 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세상, 친구, 부모
님, 선생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
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야하며 이 마음들과 수많은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고 답아
서 남겨두고 싶다.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야할 것이 무엇이며 어느 하루는 다르게 살아야하는 것은
아닐지를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다. 내가 졸업할 때면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야할
지를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김규한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배웠다.
사랑이 밀려올 때 감사를 밀어줘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은 날카롭고 정보다 많은 날을 가지고 있어,
상처를 내기도 조각을 깎기도 한다는 것을

"지금껏 틀렸기에 고칠 수 있었고,
물랐기에 배울 수 있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